

선홍빛 꽃무릇, 잎과 꽃 그리워하다 가을을 부르네...



글: 최병효

(주 노르웨이 대사, LA 총영사관 역임)

“천리포에서 처음 본 꽃무릇, 지금도 감동

작년 9월 말쯤 고창 선운사 입구에서 처음 접한 그 놀랍도록 선명한 선홍색 꽃무릇 들간의 감격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그 군락지라는 영광 불갑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 중에 올해에는 개화가 좀 빠르다고 해서 9월 19일 긴 하루 길의 꽃무릇 관광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먼저 선운사에 들렀다. 작년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감동을 재경험한 후 40여분 남쪽의 불갑사로 향했다.

꽃무릇은 땅에서 수심 센티미터 위로 곧바로 솟아오른 속이 빈듯한 파란 줄기는 시원스런 미녀의 다리를 연상시킨다. 그 위로는 새빨간 가느다란 수술들과 역시 새빨간 마스카라 눈썹 모양의 꽃잎들이 6-8 개 정도 모여 화려한 왕관의 형태를 구성한다. 꽃무릇인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사화였는지는 모르나 그 꽃을 처음 본 것은 2008년 귀국 후 천리포 수목원에서였다.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기만 하기 때문에 상사화라고 불린다고 했다.

처음 듣는 꽃 이름이 신기하기도 하고 군데군데 몇 개씩 피어있는 꽃의 모습과 색깔이 아름다워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당시의 상사화라는 말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름 자체가 큰 감동이었다.

그런데 환갑이 다 되어서야 평생 처음으로 천리포에서 그 상사화류의 꽃을 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백제시대에도 남쪽 지방 절들에서 꽃무릇을 심었다니 전에도 봤을텐데 그제서야 처음 본 느낌이 든 것은 이상한 노릇이다. 서양의 경험철학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나 전에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따라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면 보지 않은 것과 같으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닐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본 것은 본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니 의식 없이 사는 인생 또한 어떻게 산 것인지 모르는 삶이니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물론 인생이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는 의문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꽃무릇 감흥 잊을 수 없어...”

이번에는 그 후 꽃무릇의 대규모 군락지를 처음 본 것은 작년 9월 마르코폴로의 고창 선운사 소풍때였다. 절로 들어가는 길과 절 밖의 강가에 엄청난 무리를 지어 피어있는 그 강렬한 빨강색 무리들은 차라리 하나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곳이 있구나 또 이를 가까이 두고도 아무 것도 모른채 살아 온 삶이었으니 너무 무심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 감흥을 일 년내 잊지 못하고 있다가 9월 중순 성북동 길상사에 그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니 법정스님의 유해가 뿌려진 바로 그 위에 그들이 붉게 피어 있었다. 법정스님의 유언이라고 했다. 평생 무소유를



선운사 꽃무릇의 아름다운 자태.



법정스님 유해 위에 핀 꽃무릇

실천한 그였지만 열반 후에는 피안의 세상에서 일년에 한번씩은 호사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는 그 원산지를 중국, 한국, 네팔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을 거쳐 백제로 들어왔다고 하니 학계에서 사실을 명확히 밝힘이 좋을 것 같다. 사전을 보니 꽃무릇 (Lycoris radiata)은 수선화과 (Amaryllis family) 상사화 속(Lycoris genus)의 다년초 종(species)으로 중국에서는 만주사화 曼珠沙華 또는 석산 石蒜 (볼 마늘, 한약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꽃무릇, 붉은 상사화(相散花) 등으로도 불리며 영어 속칭은 레드 스파이더 릴리(Red Spider Lily)다. 뿌리에 알카로이드 유독성이 있는 다년생 구근성 식물로 6장의 꽃잎이 방사형으로 붙어 있고 원래 진빨강이나 품종 개량으로 일본에서는 흰색, 분홍, 연두, 파랑, 보라, 초록, 노랑, 검정색 등이 있다. 꽃말은 슬픈 추억, 죽음, 환생, 잃어버린 기억이다.

“국내 최대 꽃무릇 군락지 ‘불갑사’

상사화는 잎이 먼저 나온 후에 7월에 꽃이 피며 색이 분홍색이나 9월 중순 이후에 꽃부터 피는 꽃무릇과는 다르다. 안도현 시인은 “꽃무릇을 보지 않고 가을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더니 가을의 시작을 느껴라 꽃무릇을 우선 찾아 나설 일이다. 우리나라의 군락지로는 영광 불갑사, 함평 용천사, 고창 선운사가 꼽힌다고 하는데 이번에 용천사는 가지 못하고 불갑사에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꽃무릇 군락지로 고창 선운사·영광 불갑사로 꼽혀

불갑사의 꽃무릇 축제 꽃의 아름다움으로 전국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 복세동

개달음의 세상을 뜻한다며 일본에선 ‘피안화’로 불리워져

로 가본 것이다.

불갑사는 간다라(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승려 마라나타가 백제 침류왕 1년인 384년에 영광 법성포를 통하여 입국해서 불교를 전파하고 처음 세운 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갑사에는 오래 전부터 꽃무릇이 있었으나 근년에 절을 정비하면서 이를 대규모로 심어서 그 군락지로 유명해졌다고 한다. 사찰 주변에 많이 심는 이유는 그 구근의 독성이 단청에 쓰여 벌레를 막기 때문이며 과거 기근이 들 때는 뿌리를 갈아서 독기를 빼내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평일임에도 불갑사의 꽃무릇 축제에는 전국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 복세동이었다. 꽃무릇이 한국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줄 이제야 알았듯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 이승에 좀 더 머물러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니 고마울 뿐이다.

“피안화(彼岸花)로 부르는 일본 꽃무릇

내가 가르치는 인터내셔널 컨플릭트(International Conflict) 과목의 수강생중에 오사카에서 온 학생이 있어 꽃무릇 사진을 보여주고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물으니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는 히간비나(ひがな彼岸花) (또는 曼珠沙華, 石蒜) 라고 했다. 그가 찾은 검색을 보니 나라의 불통사가 군락지로 유명하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도 추분 무렵부터 10월초까지 핀다니 시일을 맞춰 가보고 싶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에서 온 다른 학생들은 이 꽃을 모르는 것을 보니 그곳에는 많이 퍼지지 않은 모양이다. 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를 본 기억은 없다. 물론 전에는 그 꽃에 대한 의식이 없었으니 믿음만한 기억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NHK의 인기 드라마 ‘히간비나경시청 수사과’ 에서 인기 걸그룹 카리의 멤버이자 탈퇴 후 일본에서 배우로 전향한 강지영이 출연해 주제가로 부른 ‘최후의 인생이 인기라고도 한다.

꽃무릇을 우리는 절꽃이라고도 부르나 일본에서는 피안화(彼岸花)라고 한다니 그 의미가 더 좋은 듯 하다. 피안은 단순히 이 세상(此岸)이 아닌 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벗어난 개달음의 세상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체의 고통이나 번뇌가 없다는 피안에도 꽃은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아무리 좋은 피안의 세상이라고 해도 꽃이 없는 곳이라면 무료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개달음을 얻지 못하는 범인들은 피안의 세상에 갈

수 없을 터이니 차안(此岸)에서라도 그 좋은 피안화를 실컷 보고 생을 영원히 마감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대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키히토 일왕부부도 꽃구경

도쿄 신주쿠에서 기차로 한시간 반거리의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킨차쿠다의 코마에키에 만주사화(曼珠沙華) 축제기간(9월 말~10월 초)에 내리면 100만 그루나 피어있는 그 꽃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동네는 아키히토 일왕부부가 일왕으로서 처음으로 지난달 20일 고구려 마을 히다카시의 고마신사를 방문하고 히간비나 꽃밭도 거닐어 뉴스가 된 곳이다. 마침 그 전날 나도 한국에서 꽃무릇을 보러 갔으니 무슨 인연인지 한 일관제도 한 마음으로 여러가지 꽃을 함께 즐기는 관계로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해 본다.



아키히토 일왕 부부의 꽃무릇 구경.

일왕 부부는 마중 나온 고려마을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고려신사를 찾았다. 고려신사의 공사인 고마 후미야스는 고구려의 역사, 고려신사 계보 등 일왕의 질문에 답하면서 신사를 안내했다. 일왕 부부는 고마중사에게 고구려인들의 일본 정착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배를 마친 뒤 점심까지 같이 했다. 신사와 고려옛집 등을 돌아보며 3시간 반가량 머물렀다. 이어 석산화가 피어 있는 고구려 마을길을 30분간 산책하기도 했다.

지난해 퇴위 의사를 밝힌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말,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예정이다. 퇴위를 앞둔 일왕이 고구려신사를 방문한 건, 한국 측에 반성과 화해의 의미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1989년 즉위 때부터 “(방한의) 기회가 된다면 친선관계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보아 퇴위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의사를 한 번 더 표했다는 추측이 더 강하다. 아키히토 일왕은 재임 기간동안 여러 차례 한국 방문을 희망해 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일왕의 방문을 만류하는 일본 보수세력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측 입장 등이 방문의 발목을 잡았다.

일왕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패전일 희생자 추도식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3년 연속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01년 생일 기자회견에서는 “백제 무령왕의 자손인 내 몸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서 “한국과 연을 느낀다”며 백제의 후손임을 직접 밝힌 바도 있다.

또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다”고도 했고 “한국과의 교류는 이것만이 아니었다”며 “한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후 3년만인 2004년에는 일왕의 당숙인 아사카노미야가 충남 공주시의 무령왕릉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2005년엔 사이판의 한국인 전몰자 위령지 ‘한국평화기념탑’에 참배했고 지난해엔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전시중인 한국 국보 78호인 금동반가사유상을 관람했다.



전남 영광 불갑사 꽃무릇